**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(13) -나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(고전15:12-20) 3/27/2016**

본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.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, 우리의 전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.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. 만일에 하나님도 없고, 부활도 없고, 내세도 없다면 인생 싹 바꾸어야 한다. 이판 사판,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다가 내 죽고 싶은 날 죽으면 된다. 그런데 본능이 안다.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, 죽을 날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,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한다.

**반대로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, 모든 것을 양보해도 상관없고, 참 진리를 붙잡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.**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다.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.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다. 하나님이고, 그리스도고, 성령이시다.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(요14:6)

감사하게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.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이다. 오늘 그 축복을 붙잡는 부활 주일이다.

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붙잡고 세례를 받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시작을 하는 것이다.

**1. 세가지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.**

**1) 성경의 증거다.** 부활이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.

수많은 세월 속에서 시대마다 각각 다른 사람을 택하여 부활의 언약을 계속 주셨다. 욥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붙잡은 것이 부활의 언약이다(욥19:25-26). 다윗도 마찬가지다(시16:10)

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 생활해야 한다.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겠는가?(롬10:17) 응답도 어렵다(요15:7)

**2) 빈 무덤이다.** 사단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 거짓말을 퍼뜨렸다.

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. 기절한 것이다(기절설). 환상을 본 것이다(환상설).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(시체 도난설). 이 모든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가? 정말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이다. 빈 무덤의 증거다.

**3) 수많은 증인들이다.** 본문 11절까지가 그 말씀이다.

**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, 특히 8절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이다.** 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냐? 어리석었던 자신을 고백한 것이다.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.

그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, 생명을 걸고 부활 신앙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.

**②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는가?** 그 분이 부활하여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(계3:20, 요1:12)

**2.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냐?**

**1) “오직”이다.**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. 부다, 마호멧, 공자, 누구도 아니다.

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,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한 것이다. 그리고 부활하면서 해결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. 영적 문제다. 첫 인생 아담을 무너뜨린 문제고, 지금도 계속 되는 문제다(사60:1-2).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면서 뱀의 머리를 밟아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이다(고전15:25-26)

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(고후5:17, 요5:24)

**2) “유일성”이다.**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축복해 유일한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. 왜 인가?

부족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. 노예 요셉을 보고 주인과 애굽의 왕까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(창39:3, 창41:38).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. 대적이 이삭을 향해 “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”라고 인정했다(창26:29)

그래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?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받으라는 것이다.

3**) 내가 하는 모든 일, 모든 장소, 모든 만남 속에서 “재창조의 능력”이 나타나는 것이다.**

정말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인생이 바뀌었고, 그들은 전부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다.

마가 다락방의 열두 제자와 이름 없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, 세상을 바꾸고, 로마를 정복한 것이다. 그들이 가는 곳에, 하는 일에 증거를 주셨고, 증인이 된 것이다.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할, 성공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은 것이다. 이런 제자를 키우자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다.

**3.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평생에, 모든 문제 사건에서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 어떻게 체험하는가?**

**1) 나의 24시이다. 어떤 경우도 낙심, 불평,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을 버리라.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를 하지 마라.**

**① 그 순간 무조건 사단의 통로가 된다. 진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, 믿음 회복하라.**

“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”, “부활의 능력 앞에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”. 그것이 나의 24시가 되게 하라

**②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“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”라고 했다(눅23:42)**

부끄러운 마음으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. 그런데 주님은 “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”고 했다.

예수님은 “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”고 했다(마17:20).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매 순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.

**2) 나의 25시이다. 25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. 하나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다.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**

**① 언제 이런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가?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, 절대 순종할 때이다.**

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부활의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.

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안다.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했다. “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.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”(마26:39)

**② 아담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다.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.**

그러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원죄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깨져 버린 것이다(롬5:19)

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(삼상15:22).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,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살아야 한다(막8:34).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도 있다. 내 기준과 원하는 것과 안 맞을 수도 있다.

평소에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(엡6:1, 롬13:1). 그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.

**3) 나의 영원이다. 부활의 마지막 결론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다.**

부활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,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.

그래서 위엣 것, 영원한 것 바라보라는 것이고, 거기에 쌓고 거기에 심으라는 것이다.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위로, 영원한 상급,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. 꼭 이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한다.